

데스크 시각

치유와 통찰



홍 행 기
경제부장

좋은 강사들의 강연은 대부분 ‘정중에게 감동을 안겨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광주일보에서 운영하는 ‘리더스 아카데미’ 초빙강사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수많은 명 강사들의 강연을 접해 본 결론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사를 분류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데, ‘감동의 종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치유(Healing)를 주는 강사와 통찰력(Insight)을 주는 강사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치유’를 주제로 하는 강연은 청중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준다. 강사 개인의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대부분으로, 강연이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온다. 눈시울을 훔치던 청중들은 ‘나처럼 모두가 고민이 있구나. 나는 혼자 가 아니야’라는 생각에 후련해진 가슴을

안고 강연장을 떠난다.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느낄 수 있는 지만 효과가 지속하는 시간이나 문제해결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찰력을 주는 강연은 다르다. 강연 내내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가장 큰 특징은 ‘아하!’라는 감탄사가 자주 들린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 ‘아하 경험(Aha experience)’이라고 불리는 반응인데,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갑작스러운 통찰이 생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찰이 ‘상황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독일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대표 주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ohler)가 1971년 발표한 ‘유인원의 지각실험’은 ‘통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일명 ‘통찰력 실험’으로 불리는 이 연구에서 쾰러는 ‘동물들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물 간의 관계를 분석·인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낸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눈물의 정치학

의 원군이였기에 ‘눈물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조의 아들 조비의 경우도 후계자 경쟁에서 눈물이 큰 역할을 했다. 조조가 출정할 때, 경쟁자 조식은 수려한 문장으로 부친의 공덕을 찬미하여 조조를 흠족하게 했다. 반면에 문장력이 뒤지는 조비는 조조 앞에서 정신이 아찔하도록 묵놓아 울었다. 결과는 조비의 한판승이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눈물은 아무래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눈물과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눈물을 꼽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눈물을 흘리는 TV광고로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잔잔한 감동을 줬던 그 광고 카피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전멸 위기를 눈물로 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몰리자 박 대통령은 정당 대표 TV연설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 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해 당을 기사화생시켰다.

실험에 등장한 원숭이 ‘술탄’은 손에 쥔 짧은 막대기로 우리 밖 과일을 잡아당겨 먹기 위해 애를 쓰지만 계속 실패한다. 우리 밖에는 기다란 막대기가 놓여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우두커니 (상황을) 바라보던 술탄은 갑자기 작은 막대기로 우리 밖 긴 막대기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긴 막대기로 과일을 끌어당겨 먹는 데 성공한다.

쾰러는 이처럼 동물이 ‘전체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혀 새롭게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정의했다.

쾰러의 실험에서 밝혀진 것처럼 통찰의 목표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리미트리스(Limitless)는 통찰의 ‘효용가치’를 돌아보게 해준다. 무능한 작가인 주인공이 우연히 신약 NZT를 복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영화는, 인간의 뇌가 100% 가동되면서 생기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보고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학습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은 이를 기반으로 무한한 통찰력을 갖추게 되고, 지지자들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정치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통찰력의 효용가치를 ‘더 나은 미

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무한한 통찰력을 갖춘 주인공이 직업이 ‘정치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며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정치인에게 통찰력이야말로 반드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인에게서는 통찰력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간첩증거 조작사건 등에서 보여준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혼선과 무능은 통찰력을 나침반 삼아 국민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혼돈과 불신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에 포위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 지금 우리 정치인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redplane@kwangju.co.kr

社 說

광주·전남도 ‘관피아’ 폐해 근절 나서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고 한다. 관피아는 중앙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광주·전남 상당수 공기업에도 퇴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이나 간부를 맡고 있다. 따라서 유착 비리 차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출신 공무원의 관련기관 재취업)에서도 보았듯이 그 적폐는 심각하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보니 감독관리 업무는 뒷전인 채 눈감아주기와 향응, 상납 등 부패 고리가 결국 대참사를 불렀다.

광주시의 경우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3분의 1이 공무원(공기업 포함) 출신이다. 전남에도 공무원 출신 30% 가량이 공기업 및 출자기관 대표 이사나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관피아 개입 비리에 대한 수사

도를 넘어선 광주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광주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의경이 관용차로 종대장을 집어다 데려다 준 뒤 뺑소니사고를 내는 가 하면 경찰관이 아내를 폭행하고, 음주 상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느슨한 기강으로 과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광주 남부경찰에 입건된 박 모 상경은 지난 18일 오후 6시39분께 남구 링동 한 도로에서 긴급 관용차량을 몰고 가다 서 모곤(17)의 오토바이를 치어 골절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고 한다. 박 상경은 이날 5·18 기념행사 후 종대장 김 모 경감을 자택에 데려다 주고 복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상경이 운전했던 관용차는 긴급 출동 시 선두에서 지휘·감독하는 차량으로, 규정상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 모 경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이 모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아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이 경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다 들롱나 경질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지탄받고 있는 마당에 광주경찰마저 공직 기강 해이가 이 정도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떠들어왔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1회성 행사’에 그쳤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몇몇 사람의 기강 해이로 치부해선 안 된다. 경찰은 자성과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공권력도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無 等 鼓

‘통계학이라는 비밀스러운 단어는 증거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진 오늘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데 사용된다. 또, 사물을 과장하거나 극도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용된다. 물론, 사회나 경제의 동향, 기업의 경영상태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통계적 방법과 통계적 용어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통계’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발표자와, 사용된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황당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1954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대릴 허프가 출간한 ‘새빨간 거짓말, 통계(How to lie with statistics)’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상하게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올해 3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LG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그러나 서민 체감경기는 ‘글썽’이다. 발표된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바뀐 통계기준과

환율효과와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정부와 기업의 소득이 포함된 것도 ‘GNI 3만 달러’기대감에 일조를 했다. 시점을 바꿔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식 GNI는 2만6205 달러였고, 이 가운데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였다. GNI의 절반을 조금 넘는 1인당 1만5000달러가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이 되는 셈이다. 올해 GNI 3만 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지난해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역시 ‘통계는 통계일 뿐’인 거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비평가인 H. G. 웰스는 “유능한 시민이 되려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통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가 기껏 GNI 통계 하나로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있다.’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려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좋은 국민이 되려면,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해보려는 자세는 있어야 할 것 같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은편칼럼



이 병 우

단국대학교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의 눈물은 큰 역할을 한다. 어떠한 말보다도 위력을 발휘한다.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은 “눈물 속에 신성함이 들어 있다. 눈물은 만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소설 삼국지에도 눈물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유비의 눈물과 조비의 눈물을 들 수 있다.

유비는 ‘눈물의 통치학’으로 중국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유명하다. 눈물 연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유비는 조조나 손권처럼 돈돈한 후원세력이 없었다. 오직 민심만이 자신

기 고

슬로 라이프(Slow life)가 대안이다



최 성 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가스누출, 폭발사고, 해난사고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테러와 정보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사고시마다 대안으로 매뉴얼 제작과 시설 점검을 들먹이지만 그것으로 안전이 확보되지는 못했다. 사고는 예고 없고 강조하지만 분명히 사고는 징후가 있다. 우리사회 안전 무엇이 문제일까. 앞으로도 나쁜 사고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사고는 분명 예고가 있다. 이를 입증하는 하인리히법칙이 있다. 미국의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산업재해에 관한 1 : 29 : 300이라는

유명한 법칙을 발견한다. 산업재해로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 그 전에 이미 동일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 발생했으며,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최근의 각종 사고를 되짚어 보게 한다. 산재로 한 해 2000명이 숨진다면 전쟁이나 다름없다. 산업현장의 장비와 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이 많지만 예산 때문에 제때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고 정해진 내용연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체된 노후장비는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과감한 투자와 규정에 따른 감독기능 부활만이 다음 차례가 될 지도 모르는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바쁜 직업윤리로 무장하고 일을 보람과 책임으로 바라본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중심의 ‘스피드 경영’과 지나친 성과주의는 작업준비와 안전점검 등 작업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가리지 않고 결과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시각은 비민주적이고 몰사화적이다. 어린 시

절 학교에서 배운 윤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사회라면 구조적 모순일 수 있다. 근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

사회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우리 백의 민족은 본래 홀로 자족하고 이웃과는 상부상조하며 세상을 관조할 줄 아는 민족성을 가졌다.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작금의 풍조는 근대 산업화의 병리현상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바꾼 재독 철학자 현병철교수는 ‘피로사회’로 진단하여 잔잔한 반향이 일었다. 다발하는 각종 사고는 피로사회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매년 주어지는 ‘% 성장’의 지표에 쫓기다 거기에 길들여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 돌진하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고에 이르는 것이다. 사회도 병에 걸렸으면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 경제력, 인정받을 만큼 일여섯으니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갔으면 한다. 매뉴얼만 만들어서 될 일 아니다. 이 배에 돈이 아니라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매뉴얼이 의미가 있다. 이제는 매

뉴얼을 들여다 볼 정신적 여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생활방식을 슬로라이프(Slow Life)로 바뀌어야 한다. 스피드 경영이 속도와 효율 경쟁이라면 슬로 라이프는 느림과 여유 경영이다. 이는 최근 슬로푸드, 슬로시티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조류가 되고 있다. 슬로 라이프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작업장은 물론 삶의 공간에서 규정된 본래의 속도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제품 생산부터 가치와 기능 등 소비자 후생을 먼저 생각하고, 소비의 전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착한 음식, 착한 소비가 결국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삶의 가치와 가족의 행복을 생각할 여유를 가질 때,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의식을 갖게 된다. 바쁘다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보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또 다시 소만 잃게 된다.

된 사례, 1954년 우리나라의 사사오입 개헌파동 사례 등이 모든 사례가 1표차로 역사를 쓴 대표적인 경우이다.

6·4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P. 어담스의 말처럼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하는 대표를 뽑지 않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중국 한나라시절 율학자 동중서의 ‘해현경장’(解愼更張)이라는 고사가 있다. 동중서가 한 무제에게 올린 현량대책(賢良對策)에서 유래한 것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비유하는 뜻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지닌 ‘해현경장’의 고사성어를 실천할 때다.

▲최현구·경기 안성

6·4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6·4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내 지역에 ‘안전’을 뿌리내리는 변화의 시작을 위해 우리 모두 한 표를 행사하자.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너무도 크다. ‘내 한 표가 변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 하나쯤이야’ 등의 생각은 이번 선거에서는 과감히 버려자.

지난 1794년 3000여 개의 연방 법률을